

사커브레이크 | 10개 구단 사령탑 바뀐 K리그...남은 감독들의 거취는?

최진한감독 운명, 도지사 선거 변수

(경남 FC)

부산, 차기 사령탑 후보 3명 압축 내년 생존 위한 적임자 찾기 총력

지도력 검증받은 경남 최진한감독 도지사 선거 후 재계약 여부 결판

이제 2팀 남았다. K리그 감독들에게 올 겨울은 잔인했다. 무려 10개 팀의 사령탑이 물갈이됐다. 세 차례 휘몰아친 광풍이 이제는 조금 잦아들었다. 현재 감독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바뀔 가능성이 있는 팀은 부산 아이파크와 경남FC뿐이다.

부산은 1~2일 내에 선임감독을 정할 계획이다. 다음주 월요일인 17일 선수단이 모여 훈련을 시작하는데 되도록이면 그 전까지 선임하겠다는 생각이다. 부산 안병모 단장은 "17일 안익수 전 감독의 이임식이 있는데 이임식과 취임식을 같이 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은 이미 차기 사령탑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해 워선에 보고했다. 재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안 단장이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다. 안 단장은 "다음 시즌은 최대 3팀까지 강등될 수 있다. 그런데 구단이 큰 투자는 해 줄 수 없는 여건이다. 일단 생존이 우선이다. 지금 선수들을 빠른 시간 안에 조직할 수 있는 감독으로 뽑을 것이다"고 기준을 설명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안 단장은 "만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간에 쫓겨 급하게 뽑지는 않겠다. 당장 다음 주 훈련은 코치들이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경남은 상황이 좀 묘하다. 경남 최진한 감독은 2010년 12월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자리를 옮긴 조광래 감독의 후임으로 지휘봉을 잡으며 3년 계약을 맺었다. 아직 1년 남았다. 문제는 옵션조항이다. 경남 박공원 전력강화부장은 "3년 계약을 하면서 2013년 연봉과 계약체결은 구단과 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최 감독도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른바 2+1 계약이 맞는 것이다.

최 감독이 올 시즌 보인 성과를 보면 재계약이 마땅하다. 경남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에도 FA컵 준우승을 차지했고, 도시민구단으로는 유일하게 그룹A(1~8위)에 들었다. 최 감독의 지도력이 증명됐다. 그러나 정치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경남 구단주는 6월 전임 김두관 도지사가 물러난 이후 공석이다. 19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최 감독을 비롯해 주요 선수들의 재계약 여부가 선거 이후로 전부 미뤄져 있다. 만약 도지사 선출 후 정치적 입김 등의 이유로 감독이 바뀌 경우 정치적 난이 불거질 수도 있다.

윤태석 기자 sport@donga.com 트위터@Bergkamp08



K리그 사령탑들의 교체 바람이 거센 가운데 경남 최진한 감독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가 올 시즌에 다른 계약연장을 할지 여부는 19일 경남도지사 선거 후에도 가려진다. 스포츠동아DB



이영무 고양 Hi FC 감독



안양FC 이우형 감독

안양FC 이우형·광주FC 여범규 감독 체제로

■ 2부리그 사령탑 구성은?

고양 Hi FC 이영무, 감독직만 올인

K리그는 내년 역사적인 2부 리그 출범을 앞두고 있다. 2부 리그는 올해 1부 리그에서 강등된 상주상무와 광주FC 그리고 경찰청, 고양 Hi FC, 충주 험멜, 부천FC, 안양FC, 수원시청 등 8팀으로 구성됐다. 2부 팀들은 1부와 달리 안정을 택했다. 상주상무와 경찰청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박항서, 조동현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내셔널리그에서 2부 참여를 결정한 고양 Hi FC와 충주 험멜, 수원시청도 각각 기존의 이영무, 이재철, 조덕제 감독이 내년 시즌 팀을 이끈다. 고양 Hi FC 이영무

감독이 선수단에 집중하기 위해 겸임해 왔던 단장직을 내려놓은 것 정도가 눈에 띈다. 챌린저스리그(기존 3부 리그)에 속해 있던 부천FC도 광경근 감독으로 그대로 간다. 안양FC는 고양 국민은행 축구단을 일부 흡수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국민은행 이우형 감독을 초대 사령탑으로 결정했다. 사령탑이 바뀐 유일한 구단은 광주FC다. 광주는 2부 강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최만희 전 감독의 뒤를 이어 여범규 수석코치를 감독으로 승격시켜 내년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프로전환 초기라 대부분 구단들이 선수단의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적인 운영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태석 기자

1 1년→팀 정비 2 2년→전력 향상 3 3년→성적 달성

명가 수원 재건 '3단계 프로젝트' 떴다

유스팀 출신들 미래의 전력 육성 서정원 감독과 3년 계약 힘 신기

"명성은 있어야죠. 이름값이 전부 아니잖아요." 수원 삼성 이석명 단장의 냉정한 진단이다. 올 시즌 수원은 2% 부족했다. K리그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FC서울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지만 우승을 내줬고, FA컵 역시 참담했다.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출전권을 확보했지만 FA컵을 제패한 포항에

정규리그 3위 자리를 내줬다. 결국 자력 아시아 무대 진출도 아닌 셈이다. 수원의 판단은 확실했다. "마누라와 지식 빼고 다 바꾸자"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말처럼 구단의 노선부터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당장의 성적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겠다는 비전 프로젝트다. 이 단장은 "과거 명성에 취해 살 수는 없다"고 했다. 윤성효 전 감독에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서정원 감독도 구단의 '10년 대계' 마스터플랜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수원이 서 감독과 3년 장기계약을 맺은 까

닭도 그래서다. 요즘 사령탑의 계약기간은 통상 1~2년에 +@ 옵션이 붙지만 수원은 이 트렌드 대신 서 감독과 코칭스태프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 주기로 했다. 1단계 팀 정비 및 개편, 2단계 전력 향상, 3단계 성적 확보 등이 골자다. 특히 1단계 계획에는 프렌차이즈 육성이 포함되는데, 유스 출신들을 적극 육성하고 실전에 기용하기로 했다. 완성된 선수를 사들여 타이틀을 얻었던 기존 틀을 벗어날 것이라는 지다. 서 감독은 "어린 선수들을 성장시켜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주력 선수단 중에는 중앙 수비수이자 주장인 광희주가 유일한 프렌차이즈 멤버다. 이 단장은 "뺄을 깎는 심정으로 기초부터 다시 끌어 올리겠다"며 희망을 내다봤다. 남정현 기자



수원 삼성의 구성은 뚜렷하다. 미래로 지향점을 설정했다. 서정원(사진) 감독을 신임 사령탑에 올리며 3년 계약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포츠동아DB

유럽파코리안 주말 경기일정 (한국시간)

지동원(선덜랜드) 16일 오전 0시 맨유 (원정) SBS ESPN 중계	차두리(뒤셀도르프) 15일 오후 11시 30분 하노버 (홈)
이청용(볼턴) 16일 오전 0시 찰턴 (홈)	손흥민(함부르크) 15일 오후 11시 30분 레버쿠젠 (원정)
박지성(QPR) 16일 오전 0시 풀럼 (홈) SBS ESPN 중계	김보경(카디프) 16일 오전 0시 피터버러 (홈)
기성용(스완지) 16일 오후 10시 30분 토트넘 (원정) SBS ESPN 중계	김보경(카디프) 16일 오전 0시 피터버러 (홈)
박주영(셀타비고) 18일 오전 5시 30분 레알베타스 (홈) KBSN SPORTS 중계	



울산 미드필더 이호는 2012 FIFA 클럽월드컵을 끝으로 민간인 신분을 잠시 잊게 됐다. 17일 상무 임대를 앞둔 그는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짧은 휴가를 보냈다. 스포츠동아DB

임대 앞둔 이호, 눈물의 고별무대

클럽월드컵 히로시마전 가슴아픈 패배 정든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 건네며 울컥

산프레체 히로시마(일본)와 2012 FIFA 클럽월드컵 5~6위전(2-3 울산 패)이 열린 12일 일본 도쿄 아사히 스타디움. 종로 휘슬이 울리자 눈은 꼭 감은 선수가 있었다. 울산의 '살림꾼' 이호(28)였다.

17일 논산훈련소 입소를 앞둔 그에게 이날 경기는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민간인 신분의 고별 무대였다. 아울러 실질적인 임영 전야였다. 그래서일까. 6위가 확정된 후에도 쉬이 걸음을 떼지 못했다. 90분 간 누구보다 많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뛰었다. 앞서 몬테레이(멕시코)와 대회 1차전(1-3 패)에서도 사력을 다했다. 모두가 무뎠던 울산의 '철벽'을 비난했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적어도 이호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패배였다.

사실 그토록 공허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임대 가격 경쟁에서도 아니었다. 결과도 결과지만 2010년 여름부터 2시즌 반 동안 정들었던 동료들과 헤어진다라는 게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여운이 남는 듯 주변을 둘러보고 가장 늦게 그라운드를 나와 라커룸에 들어선 그는 '츠자' 모양으로 물머신·후베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그 순간 말은 필요 없었다. 눈빛을 한 번 마주친 뒤 짧막히 "수고했다"고 한 게 전부. 평소 말수 적은 이호의 눈시울도 촉촉해졌다.

나고야에서 시작해 나고야에서 끝난 일주일 간의 일본 여정에는 이호 가족들도 동행했다. 팀보다 조금 늦게 일본에 도착한 부인 양은지 씨와 두 살배기 큰 딸이 가장의 든든한 모습을 지켜봤다. 13일 김해 국제공항으로 귀국길에 오른 대부분 선수단과 달리 임영을 앞둔 이호는 이근호와 함께 일본에 남았다. 짧게나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다잡고 머리를 식히기 위함이었다. 울산 관계자는 "이호가 클럽월드컵 기간 중 많이 아쉬워했다. 상무에 가도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yoshike3

오규상 여자축구연맹회장 재선 성공

오규상(56·사진) 여자축구연맹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오 회장은 14일 경기도 이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회장 선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15명의 만장일치로 제6대 회장에 재선됐다. 임기는 4년. 2008년부터 5대 회장으로 첫 임기를 시작한 오 회장은 2016년까지 연임을 이끈다. 경신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오 회장은 청소년대표(1975~1976)를 거쳐 국가대표(1977)로도 활약한 바 있다. 오 회장은 울산 현대 부단장과 실업축구 울산 현대미포조선 단장을 역임한 뒤 2003년 여자연맹 부회장을 시작으로 여자축구와 인연을 이어왔다. 오 회장은 "유소년 클럽, 여자축구인 해외연수 등 내실을 다지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정현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트위터@sd_d02